

‘대파 논란’에 중간상인 매입 중단... 불똥 튄 농민 ‘대파 눈물’

정부 대규모 예산 투입에 가격 폭락... ‘팔아도 적자’ 상인들 매입 뚝 끊겨 신안·진도 등 전남 재배 농가 “출하 못한 겨울대파 갈아엎을 판” 한숨만

최근 정치권에서 ‘대파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부 중간유통상인들이 전남지역에서 대파 매입을 전면 중단해 농가에 불똥이 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으로 1500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 4월 한 달 동안 대파 수입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까지 의결하면서 대파 가격이 폭락하자 생산·유통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농민들은 대파밭을 갈아엎어야 할 처지라며 울상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남 대파 재배면적은 3666ha로, 전국(1만 550ha)에서 가장 많은 비율인 34.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신안(1509ha)과 진도(1043ha)는 각각 전국 재배 면적의 14.3%, 9.8%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의 대파 재배 농가는 6823호로 전국(5만 1276호)의 13.3%에 달하며, 생산량은 13만 1100t으로 전국(32만 4056t)의 40.4%의 물량을 도맡아 생산하고 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에 따르면 4월 8일 현재 32개 전국 공영 도매시장의 평균 대파 경락가격은 kg당 1690원 수준이다.

불과 한 달만에 kg당 2570원에서 900여원 가량이 떨어진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파를 생산하는 전남지역 농민들은 정치권의 논란 때문에 ‘대파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진도에서 대파 재배를 하고 있는 박길성 전남겨울대파협회회장은 “지난 3월 7일 대통령이 ‘대파

값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발언한 직후 대파 가격이 반토막나면서 상인들의 대파 매입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중간상인들은 대파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현실에 구입하면 적자 우려가 있어 매입을 중단한 상태다.

농가 입장에서 생산비와 농협 출하비를 통틀어 최소 kg당 1825원을 받아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데, 현 가격은 1700원대로 떨어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월 kg당 2910원이었던 대파 가격은 최근 대파 논란으로 두 달만에 39.1% 급락했다.

광주화도매시장 경락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대파 가격은 kg당 1830원이었으나, 이튿날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무기한 투입’을 발표한 뒤 크게 떨어져 4일 기준 kg당 1420원까지 추락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조치로 대파 소비심리가 위축됐을뿐 아니라 가격은 급락했다. 상인입장에서는

겨울대파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 새상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엷은 데 달린 격으로 이달 한 달 동안 3000여t의 중국 대파를 무관세로 추가 수입하기로 해 kg당 1000원대 가격의 대파가 시장에 쏟아지는 데 우리 농가들은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신안군 대파 재배 농민인 김정원 신안 임자 대파 연구회장도 “최근 상인들이 대파를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임자도에서 2만여평 규모로 대파를 재배하며 매입·유통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파는 한 이후 3000여평 밭에 심은 대파를 출하하지 못해 폐기를 앞두고 있으며, 유통 물량도 잔뜩 쌓여 처치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 조건이 나빠 대파 수확량이 줄어 유통상인들이 평당 2만원으로 ‘발매기’ 거래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 본전이라도 건지려면 대파 가격이 최하 kg당 2800원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출하지 못한 겨울대파를 방치하다 꽃이라도 피면 죄다 갈아엎어야 한다. 벌써부터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임자도 관광객들이 대파를 농가 보고는 ‘왜 875원에 안 파시냐’며 농담을 건넨다. 이대로 가다간 봄, 여름 대파 농사도 제대로 못 짓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농가에서는 “정부가 ‘채소 가격 안정화 사업’ 체계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난데없이 1500억원 넘는 자금을 풀기로 하는 바람에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진도군의 한 농협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 지역농협에 유통·출하명령을 내려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지역농협에 일주일분 대파 물량이 쌓였는데도 이를 시장에 풀지 않고 1500억원 예산을 쏟아붓는 엉뚱한 정책을 내놓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디스크 절제술 받다 영구장해... 병원·의사 50%씩 책임

피해자에 3억2000만원 지급 판결

법원이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을 하다 환자에게 영구장해를 남긴 병원과 의사에게 절반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원고 5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과 소속 신경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과 의사에게 연대해 A씨 일가족에게 3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15일 해당 종합병원에서 요추 4-5번간 요추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내시경으로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다.

시술 직후 A씨는 허반신의 감각 저하, 보행장애, 배변장애(2차례 배뇨) 등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A씨를 재활의학과로 보냈고 지난

2019년 11월 22일께 A씨는 ‘마미(馬尾)증후군’과 요추 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

A씨는 양 다리의 근력이 정상 근력의 25~50% 내외이고 목욕, 배뇨, 보행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

이에 A씨 측은 병원과 의사에게 의료 과실·적절한 치료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와 A씨의 척추시술에서 물리적 신경손상이나 레이저 사용에 따른 열손상이 있다는 소견과 마미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24~48시간 내에 즉시 수술해 신경압박을 빨리 할수록 신경학적 결손이 줄어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의료과실과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병원과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진 대피 이렇게
대만에 이어 미국, 일본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8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국공립 태평어린이집에서 열린 재난안전 교실에서 원생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전쟁 당시 화순 민간인 희생 정부 상대 2건 손해배상 인정

한국전쟁 당시 화순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판사 김두희)은 A씨 유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유족에게 1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같은 재판부는 B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1억 36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농로서 2m 아래 밭 차량 추락 화재로 50대 여성 운전자 숨져

화순의 농로를 주행하던 SUV가 밭으로 추락해 불이 붙어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숨졌다.

8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에서 농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2m 아래 밭으로 추락한 후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불은 2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운전자 A(여·53)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이 밭으로 추락할때 완만한 경사로로 내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감속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내연녀가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버린 공무원 징역형

내연녀가 낳은 딸을 일명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화의 수강 40시간도 부과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7월 26일께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출산한 신생아를 서울지역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이비 박스는 간간에 의한 임신, 미혼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설치한 상자로 전국에 단 두 곳에만 설치(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경기 군포 새가나안교회)돼 있다. 두 곳 모두 미인가아

동보호시설로서 베이비 박스를 운영 중이다.

영아 유기 자체는 현행법상 베이비 박스를 이용하더라도 불법이다.

A씨와 내연녀는 각자 가정이 있어 아동을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